

미국의 음주문화와 음주문제 대책

1. 미국의 술집



조 성 기
(KODCAR 예방치료본부장)

금요일 저녁 9시, 미국 워싱턴 주의 수도인 '올림피아(Olympia)시'의 한 바(Bar)에 들어가 보자. 문 앞에는 건장한 사나이가 몇이서 서 있는데 신분증을 일일이 검사하고 있다. 가만히 관찰해 보면 그 이유를 곧 알 수 있게 된다. 미국의 술집에서는 미성년자의 출입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는 규칙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술집에 들어가서 술을 마시려면 통상 바텐더 앞에 줄을 서야 한다. 각자 한 잔씩 자신이 술값을 치르고, 원하는 술을 받아서 빈자리로 찾아간다. 우리와는 달리 술은 병 채로 팔지를 않는 것이다. 빈자리가 없을 경우에는 서서 마셔야 하므로 빈 공간을 찾아야 한다. 한 모금 마시고 좌우를 보면 휘황찬란한 불빛 아래에서 흥겹게 제멋대로 춤을 추는 취객들이 보인다. 규칙이 삼엄한 미국의 술집이지만 술은 취하기 위해 마신다는 법칙은 어디나 다름없는 일을 확인 할 수 있게 된다.

잠시후 문 쪽에서 또 한 사나이가 나타난다. 그는 문을 들어서자마자 손님 중에 젊은이들이 모여 마시고 있는 곳으로 다가가고, 그리고는 그들에게 신분증을 요구한다. 신분증을 검사한 후 그는 다시 방향을 바꾼다. 이제 그는

■ 目 次 ■

1. 미국의 술집
2. 미국인의 음주
3. 미국사 속의 음주와 금주문제
4. 미국에서의 알코올문제 '개념'
5. 미국의 알코올 소비 추세
6. 술문제의 예방과 치료

만취한 사람이 있는지를 찾아보려고 좌우를 둘러보는 것이었다. 그는 바로 알코올 통제국 (Alcohol Control Board)에서 나온 검사관이었던 것이다.



미국 올림픽바의 바(Bar)

그 검사관은 술집에 미성년자를 출입시켰는지를 감독하고, 만취한 사람이 술집에 있는가를 검사하는 것이다. 만약에 그러한 사실이 발각되면 처음에는 상당히 큰 벌금을 내야하고, 그러한 일이 반복되면 일정 기간 문을 닫아야 한다. 뒷거래에 익숙한 어떤 사람은 “그런 경우 뒷주머니에 사례금을 넣어 주면되지 않겠나?” 반문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를 미국에서 찾아보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미성년자는 바의 주인이 미리 자발적으로 신분증 검사를 통해 출입을 통제하게 되고 취객은 만취 전에 짐으로 보낼 수밖에 없게 된다. 일정하게 취한 손님이 술을 추가로

주문하면 주인은 모른 척하고 일반 음료수나 커피를 제공한다. 그래도 취객이 술을 계속 요구하면 귀가를 종용한다. 술 취한 고객을 다루는 법을 정기적으로 술집종사원은 받아야 하는데 그러한 종사원프로그램(Server Program)이 미국에는 일상적이다.

취객이 그 말을 들을 리가 만무라고 하겠지만 미국의 취객은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 만약에 그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술을 요구한 손님이 주인으로부터 “You are eighty-six!”(개척시대에 가장 알코올 농도가 낮은 술이 86도 짜리였다. 그때는 86도짜리 술은 술이 약한 사람이나 취하여 쫓겨나기 직전의 사람에게 제공되는 술이었다. 요즈음은 “너하고는 그만이야”라는 의미로 쓰이는 은어다)라는 말을 듣게 되면, 그 취객은 그 바의 출입을 일정 기간 동안 제한 받게 된다. 이른바 ‘술집 정학’을 당하는 것이다. 그러한 권리가 술집 주인에게 있는 곳이 미국이다.

미국 워싱턴 주의 주류전문가 동칭 선생은 “자기가 마신 술값을 자신이 잔마다 치르고, 받아서 즐겁게 마시고, 신나게 떠들고 춤을 추며 놀지만, 자기 멋대로 취할 수는 없는 곳”이 바로 미국의 술집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렇게 정해진 규칙 속에서 마음껏 마실 수 있도록 하는 술집이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곳이 바로 미국이다.

2. 미국인의 음주

그러면 미국인은 얼마나 마시는가? 미국인은 세 사람 중 두 사람은 술을 마신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12세 이상 인구 중 54%가 “지난달에 술을 마셨다.”고 응답했다. 종교적이나 도덕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 보면 상당한 수의 음주 인구

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미국인의 술 소비량은 선진국 중 중간 정도이며, 미국의 알코올 소비량은 '1967년 이후에 속도가 미약하지만 계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알코올 관련 산업이 전체 경제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크다. 직접 간접적으로 약 700만명 가량의 인력이 알코올의 생산과 유통을 담당하고 있으며, 주세는 175억 달러, 캔과 병의 제작, 운송, 포장 등 관련 산업까지 포함하면 3조 달러가 넘는 규모다. 이는 알코올 관련 산업이 미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런데 미국인이 술을 바라보는 일반적인 눈은 통상 곱지가 않다. 미국에서 발간되는 상당수의 음주교육용 팸플릿에는 주로 알코올 남용이 교통사고, 질병, 무질서, 파괴적 행동, 폭력 등을 낳는다고 선전문구를 담고 있다. 물론 미국은 다양성을 추구하는 국가인 만큼 국민 모두가 전부가 다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실제로 그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은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 보다 수적으로 열세인 것은 다른 나라와 다를 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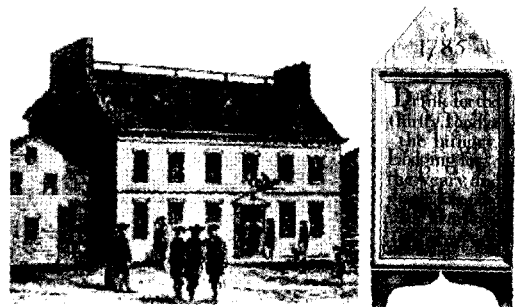
미국의 '알코올의학연구재단'을 중심으로 한 의료 연구집단들은 적당한 음주는 스트레스의 완화, 사회관계의 증진, 심장질환의 감소, 수명연장 등의 효과가 있다는 연구를 속속 발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음주를 한 사람이 하지 않는 사람보다 머리가 좋다거나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연구결과도 발표하고 있어 세인의 주목이 되기도 하였다.

미국의 알코올에 대한 신념과 태도는 이와 같이 사실 이중적인 측면이 있다. 청소년 음주의 증가, 여성음주의 증가, 알코올 중독자의 꾸준한 발생 등의 문제는 다른 나라와 거의 유사하다. 그러나 알코올 문제에 대해서 문제 자체로서 인식하고 대응하는 사람들과 알코올

의 문제라기 보다는 마시는 사람들의 잘못된 사회문화적 문제로 풀이하는 사람들로 나뉘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3. 미국사 속의 음주와 금주문제

미국인의 알코올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시대가 변하면서 대단히 많은 변화를 보여 왔다. 영국의 식민시기에는 사실 모든 미국인들이 무진장 마셨다고들 한다. 어린아이들까지 부모들과 함께 마셨다는 자료가 있다. 그 당시에는 '정기적으로 술을 마시는 것이 건강에 이롭다'는 생각이 일반적이었다. 서부영화에서 볼 수 있는 장면과 같은 술집이 사회의 중심지였던 것이다. 한때는 교회, 시청, 법원에서도 술을 팔았다고 하니 요즈음의 술집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이 있다. 그 당시에는 술이 그렇게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지만 만취가 허용되지 않는 사회적 통제는 다름없이 있었다고 한다. 그렇지만 술을 신의 선물로 간주하는 유럽의 전통이 이어져 금주자는 좀 이상하거나 모자란 사람으로 여겨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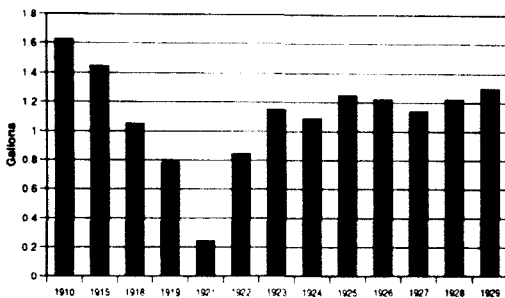
18세기 후반의 미국 주점

미국의 독립전쟁 시기에는 주세가 연방세로 부과되기 시작하였다. 19세기 말까지도 미국의 술집은 공격적이고 반사회적인 행동이 허용되

는 분위기였다고 한다. 그렇지만 산업발전, 도시화 등의 사회변화가 발생하고 사회갈등이 심화되면서 알코올 남용이 비난의 대상이 되어 갔다. 만취로 인한 사고가 늘자 만취는 점차 덜 허용적인 분위기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알코올에 대한 허용적 입장과 불허적 입장은 미국 이민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그 갈등이 증폭되었다. 초기 이민인 북부 유럽의 신교도 출신과 후기 이민인 남부 유럽의 가톨릭 신도들 간의 갈등이 그것이었다. 기층민들 간에는 금주운동이 확대되었고, 이것이 새로운 이주자들에게 대해서는 통제기제로 작용하게 된 것이었다.

금주를 찬성하는 집단들은 금주에 대한 책, 팸플릿, 포스터, 교육 자료들을 무진장 공급했고, 이것이 나중에 유명한 미국의 '금주법'을 통과시키는 기초 정보자료원이 되었다.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금주자들의 자료에는 음주와 알코올 남용을 구분하지 않았으며, 금주자는 덕을 가지고 축복을 받는 자, 음주자는 죄를 지어 비참하게 되는 자로 설명되었다.



금주법 발효직후 술 소비량의 증가추이

1920년에 그 유명한 금주법이 통과되었다. “알코올 산업을 전시에 필요한 식료품 제조산업으로 바꾸자”는 주장도 있었지만 사실은 금

주단체들의 다양한 노력이 주효한 결과였다. 더욱이 새로운 이민자들을 정치적인 위협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이를 통제하고자 했던 당시의 정치가들에게 좋은 구실이 되었던 것 같다. 금주법의 제정 이면에는 사실 알코올 자체에 대한 통제 의도 이외에 이민들로부터 기층민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정치적인 의도가 상당부분 있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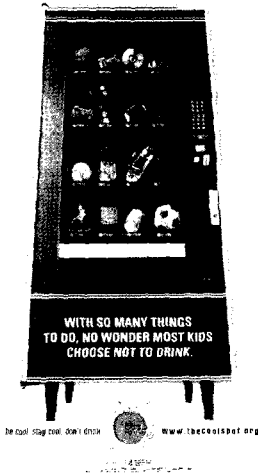
그러나 미국의 금주법은 금주운동이나 알코올에 대한 무작정적인 통제가 현실적이 아님을 입증한 좋은 사례가 되었다. 금주법이 폐지되던 날, 다른 도시도 마찬가지였지만 뉴욕의 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환호성을 질렀다고 한다.

더욱이 금주법 발효기간 중에도 사실상 술소비량은 그 이전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금주주의자들의 낙관적인 이상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음주를 막지 못했고, 밀주가 양산되었으며, 조직범죄, 폭력, 정치적 타락이 극도에 달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1933년을 끝으로 인류사에서 ‘금주’에 대한 실험은 끝난 것이 아닌가 한다.

4. 미국에서의 알코올 문제 ‘개념’

금주법이 철폐된 이후 알코올에 대한 통제는 연방정부에서 개별 주 차원의 일로 되었다. 금주는 극히 일부 지역사회, 인디언 보호지역, 21세 미만의 청소년에 국한되는 것으로 되었다.

당시 정부의 주요 알코올 통제정책은 국민의 1인당 알코올 소비량을 줄이는 것으로 세워졌다. 1975년에 설립된 ‘국립 알코올중독 및 남용 연구원(NIAAA)’의 회장은 알코올을 ‘가장 더러운 약물’이라고 규정하고 주요 논의를 규제의 대상과 정도에 대해 논의하였다.



국립알코올남용 및 중독연구원(NIAAA)의
청소년 음주예방포스터

그러던 중에 알코올중독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 출현하여 미국에서의 알코올 문제는 일대 전기를 마련하게 된다. 그것은 알코올중독이 '질병'이라는 주장이었다. 이 개념은 사실 1795년에 러시(Rush, B)가 정의를 내린 것으로, 알코올중독을 도덕적 실패가 아니라 하나의 질병으로 보는 것이었다. 이로 인해 알코올중독이 일반인들도 걸리는 질병으로 이해되기



다양한 유형의 알코올 중독자들

시작하였고, 사회적 편견 또한 배격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또한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모임인 AA가 1935년에 세상에 출현하자 중요한 효과를 낳는 치료방법으로 각광을 받게 되었다.

즉, 알코올중독자는 이제 의지 박약자, 도덕 상실자, 나쁜 습관을 가진 자로 규정되고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질병과 마찬가지로 질병의 희생자가 이해되게 된 것이다. 이 개념은 엘리니크(Jellinek, E. M.)가 추가 논문을 발표하면서, 정부의 연구기관에서도 질병 개념을 가지고 하는 연구가 촉발되었다. 미국에서 이제 알코올중독자 문제는 중독자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질병에서 사람을 구제해야 하는 문제가 되었다. 알코올중독의 질병관은 미국답게 관련된 산업의 발전을 가져왔다. 알코올중독 치료 사업의 연간 수입이 10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으며, 수십만 명이 이 업종에 종사하게 되었다.

5. 미국의 알코올 소비 추세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 베블렌(Vebren, T.)은 유한계급의 과시욕의 한 방편이 '술 마시는 일'이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생산성과 소득이 증가한 사회에서는 이제 술 마시는 일은 일반인도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는 일이 되었다. 그렇지만 인구의 노령화, 건강과 생활양식에 대한 관심 증대, 알코올 남용 문제에 대한 태도 개선의 노력 등이 미국의 알코올 소비량을 변화시키고 있다. 그렇게 마셔대던 알코올의 소비 추세가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여성 음주와 청소년 음주의 증가는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사회문제가 되었다.



경찰이 진행하는 초등학교생 음주예방프로그램 (DARE)

미국인은 술 마시는 곳이 상당히 제한적이다. 정해진 곳에서 마셔야 하고, 대부분 야외에서는 못 마신다. 야외주점의 경우도 술집의 영업지역으로 정해진 지역을 넘어서 술을 마시면 문제가 된다. 더욱이 야외에서 마시면 어김없이 100달러가 넘는 벌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통계를 보면 집에서 마시는 경우가 가장 많다. 자신의 집에서 마시더라도 미성년자는 경찰의 검문에 걸릴 경우 징벌의 대상이 되기는 마찬가지다.

그렇다 하더라도 미국인의 1인당 총 음주량은 순 알코올 기준으로 연간 9.3리터를 기록하고 있어 적지 않은 수준이다. 좋아하는 술은 맥주와 증류주와 와인 순인데, 그 비율은 53%, 31%, 16%다. 최근 매출액의 감소세는 각각 4%, 6%, 24%로 고도주의 소비가 크게 감소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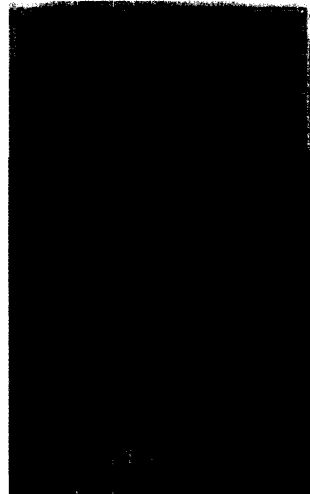
미국처럼 음주문화를 규정하기 어려운 나라도 없다. 그 이유는 미국은 다민족국가로 이민족 사이에 각기 자신들의 음주문화를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미국 내의 한국인도 고국에서의 음주습관을 못 버리고 불건전한 음주행태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2-3차 가기, 폭탄주 마시기, 술 강요하기 등이 한국인 거주지역에 존재한다. 물론 환경변화에 적응한 사람들도 많지만 고

국에서 길들여진 음주습관은 쉽게 고쳐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6. 술문제의 예방과 치료

미국인 음주의 특징은 대부분의 미국인이 가지고 있는 적정 음주의 습관이다. 즉, 대부분의 미국인은 사실 건전하게 마신다. 그러나 어느 사회나 술로 인한 문제가 없는 곳은 없으며 미국도 예외는 아니다. 국민소득의 2.5% 정도를 건강, 사고, 질병상의 문제로 인한 피해액으로 계산하고 있으며, 중독자 수를 약 15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런데 술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미국만큼 열심인 나라도 드물다.

미국은 예방과 치료의 천국이다. 알코올 문제 예방과 치료에 관한 세계의 모든 자료는 거의 미국에서 산출되고 있다면 과언일까. 모든 주마다 수백 개의 치료기관을 가지고 있는 것도 놀랄 만한 일이고 병원의 전문가 모델과 지역사회 재활상담센터 모델, 중간집, 쉼터, 그룹홈, 치료공동체 등 다양한 치료재활 전달 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는 곳도 미국이다.



인디언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태이알코올증후군 예방 포스터

예방을 위한 활동도 종합적인 홍보작업, 청소년, 노인, 여성, 음주운전, 직장인, 유색인종, 소수민족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특정 집단에 대한 예방사업, 학교, 지역사회, 가정 등에서의 프로그램 등이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잘 개발되어있는 곳도 미국이다.

금주주의자들과 음주주의자들의 대결도 불만한 곳이다. 그로 인해 건전한 음주관리법이 구체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유럽에서 개발된 위험최소화(Harm Reduction) 개념이 동시에 적극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하고 있는 곳도 미국이다. 최근에는 연방정부가 설립한 국립연구기관에서도 무조건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비현실적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적정 음주관(Moderate Drinking)을 토대로 예방대책을 찾는 연구도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특히 미국은 알코올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이 교육에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미국의 알코올 교육 프로그램은 초등학교를 비롯, 중 고등학교,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교육 전달체계를 갖추고 있다.

대학교수와 대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결성된 미국대학생알코올문제예방협회(Bacchus & Gamma)는 생활관을 중심으로 한 예방프로그램, 신입생, 운동선수 등 고위험군의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 대학생알코올문제예방협회의 학내 동아리가 자율적으로 결성된 학교는 전국적으로 1,000개 대학이 넘는다는 보고가 있다. 필자가 만난 미국동부 조지워싱턴 대학의 한 교수는 20여년간 자비로 예방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는 민간차원의 다양한 예방활동이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한 증거라고 하겠다.

미국인들은 우리 말로 '소 잃고 외양간 고

치기'는 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한 사람을 예방하는 것이 열 사람을 치료하는 것보다 낫다"는 주장을 국립연구기관에서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다. 최근에는 1달러를 예방에 투자하면 평균적으로 2.5달러 정도의 효과를 보게 된다는 경제적인 분석결과도 나오고 있고 예방의 효과가 입증되고 있어 예방활동을 위한 투자가 더욱 강화되는 추세이다.



고위험집단인 대학 체육선수를 위한 음주문제 예방 팸플릿(미국대학생알코올문제 예방협회)

미국의 주류업계도 알코올 문제의 예방과 중독자 치료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증류주 업계에서는 청소년 알코올문제 예방과 음주운전 퇴치를 위한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실행하는 '세기위원회'를 설립지원하고 있다. 미국 맥주협회는 캐나다 맥주협회와 함께 알코올음료의료연구재단을 매년 지원하여 전국적으로 저명한 학자들이 알코올과 건강에 관한 연구를 가능케 하고 있다. 특히 적

정한 음주가 건강에 유익하다는 다양한 연구는 실제로 이 연구재단의 집중적인 지원으로 입증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들이는 비용에 비해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다는 이견이 여전히 내부에 있고 사회적 편견

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지만 알코올문제 예방과 중독자 치료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미국인들의 투자와 노력은 모든 국가의 부러움을 살 만하다고 하겠다.

Love doesn't just sit there, like a stone ; it has to be made, like bread,
remade all the time, made new.

사랑이란 돌처럼 한번 놓인 자리에 그냥 있는게 아니다: 그것은 빵처럼 항상 다시, 또 새로 구워져야 한다.

- Ursula K. Le Guin -

唐詩 감상 / 杜牧의 詩

惜 別

多情이 도리어
 無情과 같아
 술항아리 앞에서도
 웃음이 안 나온다

촛불이 有心하여
 이별을 아끼는 듯
 갈 적마다 눈물 흘려
 새벽이 다 되었다

多情卻似總無情
 惟覺樽前笑不成
 蠟燭有心還惜別
 替入垂淚倒天明